

벼랑 끝 서민경제, “자영업자 해법 내놓아야”



김문호의
단상

상가 인테리어를 원상 복구할 돈이 없어 폐업도 못 한다는 학원. 그나마 찾는 외국인 손님 받으려 나이 50세에 영어를 배운다는 카페. 손님 한 사람에게 생맥주 한 잔과 노가리 한 접시를 팔아 고작 1만8000원을 번 호프집...

지난주부터 메트로가 보도하고 있는 '폐업공포 확산' 자영업자 리포트에 소개된 사연들이다.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통계 숫자의 이면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550만 자영업자의 빈곤 같은 위기의 심각성과 그 해법의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실제 통계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버티는 자영업자는 빚더미다.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8956명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1122조7919억원이다. 전년보다 7719억원(0.1%) 늘었다. 특히 금융기관에 진 빚(대출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업자들은 15만506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204명(35%) 급증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선택지는 '폐업'이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이 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낸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비자발적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3490명(중복 제외)이다. 전년(3248명)보다 242명(7.4%) 늘었다. 수급액도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188억2200만원으로 전년(167억6800만원)보다 12.2%(20억5400만원) 늘었다.

급기야 1월 자영업자수가 550만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다.

'자영업 공화국'에서 숫자가 줄었으니 반길 일 아니냐는 이들도 있을게다. 맞다.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1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9위였다. 무급가족종사자는 3.1%로 4위 수준이다. 미국·일본·독일 등 한 자릿수 국가에 비해선 여전히 높다.

하지만, 조금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괜한 걱정이 아니다.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은퇴한 중장년층들은 호구지책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복지 선진국보다 부족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자영업이 하는 셈이다. 민간소비를 비롯해 거시경

제 지표의 민낯을 생생하게 전하는 불황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기도 한다. 지금 자영업자가 힘든 건 내수 부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통령 탄핵 선고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 있다. 엄중한 시기에 정치권과 정부가 행정의 정치화나 정치의 사법화에 몰두한다면 결과는 공멸일 뿐이다. 자영업자와 이들이 고통한 임금근로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국민의 20%나 되는 이들이 표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소외되고 방치돼선 안 된다. 채무 재조정 등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약층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적극적 내수 진작과 민생 부양 대책을 펼쳐야 한다.

아울러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이 제공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자영업 비율을 줄이는 정공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살고 싶습니다”라는 영업중단 안내문구를 내건 한 카페 업주의 절규. 전국 자영업자 모두가 지금 같은 심정일 것이다.

/자본시장부장 kmh@metroseoul.co.kr

성숙한 시위가 설득력 높인다



기지수첩
이현진
(유통&라이프부)

새 학기 개학을 목전에 둔 지난달 말,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이 며칠동안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오던 시위대가 청 출입구를 모두 점거하면서다. 시위대 중 한 명은 교육청 로비에 용변을 보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명은 교육청 내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던 시위대 23명은 결국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첫 시위는 지난해 1월 시작됐다. 한 교

사가 자신이 재직하던 학교의 학생간 성폭력 문제를 제보 한 뒤 전보 조치를 받은 데 대해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면서다. 교사는 8개월간 전보 학교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1인 시위를 이어갔고, 결국 지난해 9월 해임됐다.

이후 교사는 학교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도했다. 해당 교사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학교 측에 알린 뒤 피해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학교 생활지도부장의 부주의'를 주장하며 형사고발했지만,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다.

시교육청이 해당 교사에게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생각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라는 구제 절차를 안내했지만, 그는 아직 신청하지

않고 있다. 각종 여성·노동 사회 단체는 해당 교사의 입장을 적지 않게 대변해줬다.

하지만 해당 교사의 1년 넘는 시위는 또 다른 수많은 약자를 양산했다. 교육청 내 식당에서 만난 한 조리사는 “점거 시위로 일하지 못하고 출근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라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다. 시교육청 점거, 로비 ‘용변’ 사건 등은 일년 중 가장 바쁘다는 새학기 앞둔 시기 발생했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생들을 맞는 새학기를 맞아 학교 안전 등을 점검해야 하는 가장 바쁜 시기 이런 일이 터지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지만, 폭력화 된 시위는 설득력이 없다.

/lhj@

오늘의 운세 3월 11일 (음 2월 1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자신만 너무 사랑하지 마라. 48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될 먼저 해야 하나고민. 60년생 마치 용이 승천하는 기분으로 지나라. 72년생 새로 만났던 사람에게 너무 간섭하지 않았으면. 84년생 상처는 나아도 흉터가 거슬린다.



37년생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할 때 좋은 재운이 들어온다. 49년생 초대로 하루가 즐겁다. 61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운동을 열심히. 73년생 남의 얘기를 앞뒤 들어보아 해결책이 보인다. 85년생 농천 고기가 더 커 보이는 법.



38년생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온다. 50년생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라. 62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고 한숨이 난다. 74년생 붉은색이 행운을 주니 점심 지나면서 일이 풀린다. 86년생 옳은 일을 해도 시비 거는 사람이 많다.



39년생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51년생 분수를 알고 처신해야 탈이 없다. 63년생 매일 뜨는 태양이 오늘은 더 새롭다. 75년생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은 따르게 된다. 87년생 남이 처한 법상에 숭가락만 얻으니 마음이 불편.



40년생 지금 잘나간다고 좋아하지 마라. 52년생 아까워도 주변에 나누어라. 64년생 지치고 힘들어도 가족을 생각하며 참아라. 76년생 변경된 새로운 일에 도전장을 제시하는 날. 88년생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여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41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53년생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참자. 65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낫다. 77년생 길 가다가 금덩이를 주운 운이니 황재. 89년생 파란 하늘이 그립고 비벌 언덕이 필요.



42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다. 54년생 아니라고 생각 할 때 물러나라. 66년생 자녀들의 위로가 필요한 날. 78년생 주변사람을 탓하지 말고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도록. 90년생 좋은 꿀을 얻고 싶다면 벌통을 준비해야만.



43년생 호랑이띠와 승용차에 동승하지 않도록. 55년생 남쪽으로 길을 나서면 별걸음이 가볍다. 67년생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퇴근. 79년생 지갑이 비니 사람 만나는 것이 피곤한 하루. 91년생 좋은 결과는 과거의 선택에서 비롯되어.



44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노를 힘껏 저어라. 56년생 독심으로 믿은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68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긴다. 80년생 변화의 날이니 집안청소를 깨끗하게. 92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니 감사.



45년생 다소 예민한 날이나 큰 이익을 얻고 존경을 받는다. 57년생 겉보기에 멀쩡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69년생 기관지 질환이 의심된다. 81년생 사랑이 찾아오니 양가 부모님도 기뻐하신다. 93년생 협조를 얻어 일을 풀어나가자.



46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58년생 욕심내지 말고 능력에 맞게 행동. 70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82년생 월급터전 적금과 실비보험은 필수. 94년생 형제에게 질문서 주는 것은 몸시도 신중해야.



47년생 상대에게 불만이 있어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59년생 결과부터 챙기지 말고 계획적으로 처라. 71년생 보라색이 행운을. 83년생 능력을 키워야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있을 텐데. 95년생 싫으면 불평하거나 흐트러지 말고 떠나야지.



김상회의四季 기도 도량 삼천리

무릇 산소로 숨을 쉬는 생명체 중 으뜸이라는 인간은 만유의 정기가 모여 있는 산을 신성시 여겨왔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우리나라는 산지가 70%이다. 험한 준령부터 정겨운 동산까지 산이 없는 동네가 드물다. 특히 우리 겨레의 성산인 백두산은 한반도 모든 산의 아버지 산이다. 대한민국 정기가 흘러내리는 명산이다. 그 꼭대기에 있는 백두산 천지연은 한국인의 생명수이다. 이 백두산은 천산이라고도 불리는 텐진산맥이 그 시작점이다. 높은 봉우리들이 하늘과 맞닿았다 하여 그 이름이 천산인 텐진산맥은 당연히 일년 삼백육십오일 만년설을 머리에 이도 있다.

천산산맥의 한 지류는 동쪽으로 십만여 리 떨어진 아시아의 동쪽 끝 머나먼 땅 한반도를 향해 뻗어 내리며 대장정을 시작하여 백두로 귀결되며, 단군이 태백 신단수 아래 나라를 도읍하기에 이른다. 하늘은 서로 서로 이어져 막힘이 없듯이 땅도 역시 높고 낮음이 있을 뿐 서로 연하여 땅 아닌 곳이 없다. 다만 고도에 따라 물이 그사이를 채우고 있을 뿐인 것이다. 왜 아니 그러하겠는가? 물은 생명의 젖줄이니 땅의 높낮이에 따라 호수와 강을 이루고 더 넓게는 바다가 되어 지수회풍 각자의 역할을 순환시키고 물 생명을 키우고 살리는 천지자연의 기운을 펼치는 것이다.

그래서 산신 기도와 용왕 기도는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을 대표하는 기도가 되어 왔다. 산이 많으니 산마다 관장하고 호령하는 에너지를 일러 산신 또는 산신령이라 이름한 것이다. 또 거친 바다에는 용왕이 있어 물의 기운을 다스리고 주관을 하는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신(海神)으로서 용왕의 의미는 각별한 것이다. 그러나 산이 70%요, 바다는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 삼천리는 기도처가 슬하에 펼쳐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5
	7	4			
4		1		3	8
	2	1	5		7
9					1
8			4	9	5
6	4		5		3
			2	1	
1			8		

8	1	2	4	5	
6	9	8			
	2				
4		3			
5		9	7		3
			8		1
				8	
			6	7	2
5	3	7	9	1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9	8	9	8	1
9	8	1	7	8	9
8	2	1	9	6	7
2	9	6	7	8	1
1	9	8	1	2	9
7	8	9	6	9	1
8	8	2	9	1	6
6	1	9	8	7	8
9	7	7	6	9	8

1	9	6	2	8	9
2	8	9	8	9	1
9	6	8	8	1	7
1	7	9	8	9	2
8	8	2	7	6	1
6	9	1	9	8	7
8	8	6	9	2	7
1	2	1	7	8	9
9	9	7	6	1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2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3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